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토허구역 지정 ‘초강수’

10·15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규제 효력 발생
25억 초과 주택 대출 2억 제한
전세대출도 DSR 반영키로
20일부터 갭 투자 전면차단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과 분당,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된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시가 2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키로 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 대책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요억제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 중이며, 글로벌 금리 인하와 수급 불균형으로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 마감

코스피가 전 거래일(3561.81)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7.96)보다 16.76포인트(1.98%) 상승한 864.72,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증가(1431.0원)보다 9.7원 내린 1421.3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밝혔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김 장관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정만으로도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각 40% 적용과 다주

택자 주담대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금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소위 ‘갭 투자’도 전면 차단한다.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다.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는 현재 일괄 6억원에서 집값

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단기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다음날인 16일부터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美 이달 금리인하 예고… 파월 “고용냉각 우려”

“노동시장 수요·공급 급감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 둔화” QT 중단·유동성 완화 분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른(업무 일시정지)이 지속되며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국기업경제협회(NABE) 콘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상

승) 억제 작업이 미완으로 끝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인하하면 고용시장에 고통스러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8월 2만2000개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7만9000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지난 ▲6월 14만7000개에서 ▲7월 7만3000개 ▲8월 2만2000개로 감소했다. 섣다른으로 9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감소세가 이어지면 소비여력과 기업 실적 악화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지만 상

승 속도는 둔화됐다”며 “고용쪽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경기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파월 의장은 지난 2022년 중반부터 진행해 온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QT·양적 긴축) 프로그램도 곧 종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 준비금이 충분한 조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며 “그 시점이 앞으로 몇달 안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줄이는 정책

을 말한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정책(양적완화)을 시행한 뒤 2022년 중반부터 국채 등에 대해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정해 왔다.

이날 시장과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10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줄리아 코로나도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스 대표는 “노동시장 하방 위험이 연준의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출국 구금된 60명 이번주 송환 목표

한인 사망 수사협조 등 논의

정부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스캠)·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했다. 현재 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합동 대응팀은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

국자들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14일) 구금된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59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주 중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韓줄뉴스



▲민주당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뒤집은 뒤, 훈수 말라”
▲여당,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현장검증 시도…국립 항의 소동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브리핑’ 주 3회 실시…“친근하게 정책 전달”
▲12·3 비상계엄 조사 내란특검, ‘尹 친분’ 해경 간부·방첩사 2인자 소환

▲해수부 장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미칠 영향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책실장·산업장관 잇단 방미… APEC 앞둔 한미 간 막판 협상 본격화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공개 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세일즈’

31일 개막 APEC 준비 분주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 참석

SK,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 주관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폰 첫 공개
현대차, G90 등 차량 192대 제공
한화그룹, 5만발 불꽃·드론쇼 예정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가 모이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세일즈’를 위한 기업들의 기술 경쟁 등 경제 콘텐츠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각 사가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집결시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LG전자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한화, LG,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APEC 정상회의에서 ‘K-테크 쇼케이스’ 등을 개최한다. SK는 APEC CEO 서밋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를 주관하며 국가 AI 생태계를 주제로 한국이 구축해온 관련 육성 경험과 가치 창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경주 APEC 행사 기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 첨단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행사 별도 세션에는 참

석하지 않지만, 글로벌 정상 및 빅테크 인사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최고급 세단인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을 위한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총 192대의 차량을 제공,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21~23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기간에 아이오닉 9



한화그룹이 APEC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선보일 불꽃드론쇼 시연 이미지.

과 제네시스 G80 등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각인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갈라 만찬에서 5만발의 불꽃과 2000여대의 드론으로 경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불꽃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한화는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AP

EC CEO 서밋’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

공식 후원사 가운데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해 방산 분야 퓨처테크포럼을 개최하고 CEO 서밋 세션 연사로 참석한다.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준비되는 퓨처테크포럼에서 국내외 군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방산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LG는 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70대 차량에 APEC을 알리는 래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강남 코엑스·광화문·시청·명동 등 서울 주요 7개 지역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등 세계 주요 명소에 자리한 대형 전광판에서 APEC 공식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세계 각국 정상과 귀빈에게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中, OLED 8.6G 대전환… 관건은 ‘수율’

양국 대표기업, 생산라인 투자 속도
삼성D, 4.1조 라인 구축… 내년 양산
中 BOE·CSOT 내년이후 양산 목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차세대 OLED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등 양국 대표 기업들은 차세대 OLED 생산라인인 8.6세대(8.6G) 투자에 속도를 내며 세대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6세대 스마트폰용 중심 시장이 노트북·태블릿 등 IT용으로 확대되면서 고난도 공정 수율 확보가 양국 관련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비 반입식을 열고 증착 장비 설치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0월 주요 설비 반입을 마무리했다.

중국 BOE는 약 630억위안(약 12조 6075억원)을 투입해 쓰촨성 청두에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건설 중이다.

또 TCL 계열 패널업체인 CSOT(차이나스타)는 약 290억위안(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잉크젯 프린팅(iJP) 기술 적용 8.6세대 신규 라인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OE와 CSOT 모두 2026년 이후로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시기를 목표로 세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8.6세대 공정 원장 면적은 기존 6세대(1500×1850mm)보다 약 2.2배 큰 2290×2620mm다. OLED 증착 공정은 면적이 커질수록 증착 정렬 오차와 열팽창 편차가 커지고, 미세한 평탄도 변화로 인해 막두께 균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또 절단 과정에서 파손률이 높아지고 서브픽셀 정렬 요구 수준과 열·응력 제어 난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불량률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초기 고난도 공정 수율을 얼마나 빨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양산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

을 통해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며 빠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거나 설비 관련 세제 감면과 토지 사용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국유은행은 장기 저금리 대출로 대규모 OLED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8.6세대 라인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 등 양적 정책보다는 정밀, 선도 공정 기술과 장비·소재 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율 안정화 전략을 짜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는 “한중 양국 모두 8.6세대 라인을 통해 IT용 OLED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지만 기술 진척도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양적 경쟁에서는 한국이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 정밀도와 품질 경쟁력 등 질적 우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준 기자 nauta@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5’에서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리더 한자리… ‘통제비티’ 전략 공유 (건강 수명 연장)

‘BIX 2025’ 개막
세계 15개국, 300개 기업 참가
“K바이오, 미래 이끌도록 노력”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통제비티(건강 수명 연장)’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화률치로 대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유전자와 세포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생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K세포 주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BIX 2025)’가 15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전시회로,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 국가의 300개 기업이 참가한다. 각 기업 부스, 33개 전문 세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공정,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다룬다.

먼저 행사 시작을 기념하는 개막식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전윤종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부터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캐나다 보건안보대응기구 차관보,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주한쿠바대사, 주한인도부대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까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개막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K바이오 산업이 그린·화이트·배양식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 성장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식 기조 강연으로 로버트 하리리 박사의 세포 치료제에 대한 영상 발표가 이어졌다. 로버트 하리리 박사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셀룰러티 창업자이며 인간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노화 치료의 목적은 ‘줄기세포 고갈’과 ‘노화세포 축적’을 해소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재생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후 태반유래 세포 기반 치료제는 염증이나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병확보 국민부터 송환 서두를 것”

>> 1면 ‘정부합동대응팀…’서 계속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 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나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에,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해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우리는 그 안에(스캠 범죄 종사자) 자발적·비자발적 가담자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범죄행위에서) 이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15억 이상 고가주택 규제 강화… 보유세·거래세 조정 예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광범위 지역 ‘강남급’ 규제 적용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대폭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구윤철 부총리 “세제 합리화 검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선택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후 토허구역)으로 전면 지정됐다. 과거 규제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풍선효과’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유래없이 광범위한 지역이 모두 ‘강남급’ 규제의 대상이 됐다.

◆ ‘풍선효과’ 악몽에…서울 전역이 토허구역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대상 지역으로 보면 문제인 정부 당시보다도 규제 강도가 세다. 2017년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해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더 넓은 지역을 지정하고,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예전처럼 갭투자를 통해서 별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래 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전 부문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10·15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월 16일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대출 차등 적용	현행	변경대출한도
	6억원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금리상향	현행	변경금리
	하한 1.5~ 상한 3.06%	수도권·규제지역……………3.0% 지방 주담대·기타대출…………1.5~3.0%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적용	현행	변경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에 반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시행	현행	변경
	15%	20%

자료/정부

그래픽/정민주 기자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담대 자체가 금지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증가되며,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청약 재당첨 제한과 함께 정비사업 역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 현금으로만 집 사라… 고가주택 주담대 제한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 조이기 효과가 있지만 이번 대책은 별도로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대상은 시가가 15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주담대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로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하겠다”며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도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단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적용한다.

◆ 다시 시작된 투기와의 전쟁

이재명 정부 역시 문제인 정부 당시와

같이 ‘투기와의 전쟁’도 선언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만들고, 전세 사기나 ‘가격 띄우기’ 등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전담 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가아파트를 산 외국인과 연소자를 전수 검증하고,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도 모두 조사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세금 규제도 예고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부동산 시장 체질전환 평가… “대출 끼고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전문가 분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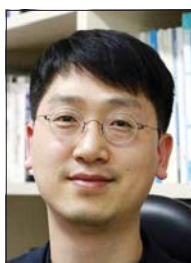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 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

‘고가주택 거래 위축·실수요자 부담 가중’ 공통 지적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 거래·자산 악영향”

김성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

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

오히려 냉각 효과를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권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 기자 jiw13@

K-게임 창간李 대통령... “정책 방향 바뀌, 기회로 만들 때”

게임 ‘4대 중독’ 프레임 전환
李 대통령 “억압 아닌 지원”
게임산업 일자리 질도 강조
수출 효과산업 육성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이제는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도 바꾸고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이번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회상하며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커녕 억압을 하는 바람에 당시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가 집에서 만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

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 개나 생길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게 관심사”라며 “(게임 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노동시간 잔적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

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한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명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니 영업이익 물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부는 회복 대책...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 100만 서명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대책
대출 300만명 부실평가 착수
단체들, 주4.5일제 반대 돌입
“근기법 확대면 생태계 붕괴”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윈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 등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파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 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윈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

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쳐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재생에너지 확산 타고 ESS 급부상... 배터리업계, 새 활로 모색

재생에너지 예산 42% 증액
정책·시장 맞물려 성장 가속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가 지속되면서 배터리업계가 ‘두 번째 성장축’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선택했다. 불안정한 전기차 수요를 대신해 장기 계약 중심의 산업용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다. 정부 정책과 기술 진보를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5GWh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숨은 심장’으로 불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저장 장치가 필수다.

ESS 시장이 6배 커지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생산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역시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꺾이면서 기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떨어졌고,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악화됐다.

반면 ESS는 공공기관·발전사 등 대형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계약이 많아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성도 적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선전에 힘입어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 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 공장, 애리조나 단독 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상반기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43억9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ESS 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산도 ESS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기후와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발전이 불규칙해질수록 남은 전력을 저장할 장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 ESS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 이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8973억원) 대비 42% 증액된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AI 시대 전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 대법원 대선개입 현장검증 시도… 野 “국감 보이콧 검토”

국정감사 3일차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로그 기록 등 관련 현장검증
천대엽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

野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어
대법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업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추미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먼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과 관련해 현장검증한 후 질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 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



추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듣자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여당 의원들과 이석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대법원 6층에 마련된 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검증 시도에 동행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

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현장검증을 두고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 형식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여당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가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하고 망신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자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조작 녹취와 저질 합성 사진으로 온갖 악마화, 회화화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사유화하기 위한 교활한 사법과괴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로 유

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를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일정이 추가된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 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인당 75명 규모의 집무실이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 14명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현장 검증에서 밝혀내겠다고 버틴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 처리지연…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쟁 재점화

與野 논의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
野 “근로기준법 자체서 예외 뒤야”
국감 이후 본회의서 합의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지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떨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

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

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동충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

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에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이진숙 해임·체포’ ‘플랫폼 규제’ 이슈 화두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첫 국정감사

野, ‘이 전 위원장 체포’ 부당성 주장
넷플릭스·인앱결제·카카오 도마 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10월 1일)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의 해임·체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의 없는 시청 불가’ 요금 인상 관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징금 지연, 카카오 택시 업데이트 불법 불가 논란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신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박종권·최수진 의원).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권을 최소화하며 “체포영장에 따른 절차였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답변 반복 시 위증을 물어야 한다”(김현 의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를 둘러싼 욕설과 고성이가 오가며 정화가 두 차

레 반복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감사가 진행된 점도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권한 없는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국감은 참담하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명칭 변경에 따른 헌관 교체 비용 4억3000만 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방통위가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황정아·이훈기 의원)며 방미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앱에서 ‘요금 인

상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하게 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실태점검(‘24.1) 후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의견수렴 중이며, 내부 보고서에는 ▲동의 요구를 수반한 이용 제한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내 차별 ▲광고형 요금제 제한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며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정무위·과방위에서는 동시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대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금지 취지를 한국도 존중해야 한다”며 구글의

외부결제 26% 수수료를 ‘법 취지 무력화’로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법률 검토로 지연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률전문가 이승근 변호사는 “방미통위 보고서상 플랫폼의 부당행위와 국내 사업자 피해가 확인된다”며 추가 입법을 주문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피드형 친구탭’ 전환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어렵다”며 “올해 4분기 내 친구 목록 중심으로 개선되되 2.0을 2.1로 고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슛폼 노출 우려에는 “14세 미만은 행태정보 미수집, 15세 이상은 비식별 정보만 활용하며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하반기 반등 신호 컨 iM라이프

‘자본·상품·영업’ 수익화 엔진 시동

신계약 유입에 CSM 두터워져
변액자산 확대, 영업모멘텀 강화
K-ICS 개선세…건전성 회복 중
연금 실시간 상담 허브도 제공

iM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주춤했지만 하반기 ‘수익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신계약 유입으로 CSM이 두터워지고 변액 중심 특별계정자산이 늘면서 판매 흐름이 이어졌고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도 분기 개선 흐름을 보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M라이프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284억원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투자 부문은 적자(-80억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261억원으로 줄었다.

그룹에도 ‘앞으로 인식될 이익’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은 두꺼워졌다. 기초 7070억원에서 신계약 기여 839억원이 유입됐고 가정·물량변경 및 상각을 반영한 기말 잔액은 7270억원으로 공시됐다. 당장의 분기 손익과 별개로 중기 수익화 여력을 키운다는 신호다.

자산 측면에서도 변액 축이 뚜렷하다. 상반기 특별계정자산은 1조4293억원으로 약 1400억원 증가했다.

iM라이프는 “운용자산 증가와 변액 보험 판매 확대”를 주요 변동 요인으로 설명했다. 변액은 시장 민감도가 높은



박경원 iM라이프 대표이사

‘양날의 검’이지만 판매 동력 유지 자체는 하반기 영업의 지지대가 된다.

건전성의 경우 K-ICS 비율은 경과 후 187.86%로 직전분기(181.94%) 대비 개선됐다. 다만 경과전 기준은 95.08%로 100%를 하회해 경과전·후 간극 축소가 과제로 남았다.

보험계약의 질 관리 신호도 눈에 띈다. 효력상실·해약률은 4.82%(전년 5.10%)로 낮아졌다. 25·61·73회차 등 중장기 유지율 구간은 각각 3.78%p, 7.11%p, 5.65%p 개선됐다. 신계약가치의 수익화(상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iM라이프는 조직과 전략을 ‘자본·상품·영업’의 연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렬했다. 올해 박경원 iM라이프 대표 취임 이후 자본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자본 민감도(금리·주식·환율) 관리와 적정 자본구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상품은 경영기획 라인으로 끌어와 출

시 전 단계부터 수익성과 자본 영향(요구자본 등)을 함께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자본 중심’의 경영기조 아래 A·LM 재정립과 가치중심 보험영업으로의 전환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실행 장치로는 연금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상담 허브가 눈에 띈다. 카카오 채널 ‘iM라이프 연금 P.R.O.’를 통해 고객·설계사 대상 실시간 상담과 예상 연금액 산출·가입·투자 상담을 통합 제공한다. 현장(GA)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사 전용 모바일 상담 시스템도 붙였다. 이 접점이 정착하면 중장기 유지율 개선과 신계약가치 중심 영업의 톱니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iM라이프의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건전성이다. 상반기 부실자산비율은 0.27%로 0.10%p 상승했는데 유가증권 1건의 건전성 분류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 하반기엔 투자·보험금융손익의 변동성 축소와 함께 경과전 K-ICS의 100%대 복귀 속도가 핵심이다.

iM라이프는 “주요 파트너 GA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받는 프로덕트 프로바이더(Product Provider)로 포지셔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운영모델 혁신(고객센터 모바일화, 언더라이팅 자동심사 확대 등)을 통한 윈스톱 오퍼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연금전문 조직 구축을 통한 설계지원 서비스, 신계약 지원 전문화 등 시장 친화적인 영업모델로 환골탈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7월 시중 유동성 55.8조 ↑… 투자 대기자금 유입

8월 광의통화 평균 잔액 440.2조

지난 8월 시중에 풀린돈이 4400조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승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4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5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

식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채권형을 중심으로 12조8000억원 증가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 집행 자금 일시 예치 및 투자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14조3000억원 늘었다.

정기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수익증권과 정

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5조9000억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수익증과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며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협의통화(M1) 평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한 1312조8000억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 증가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5790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1.1%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45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서 설민석·정승제 강의 듣는다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미래세대 새 디지털 교육문화 선사

하나은행이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

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이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리 기자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간담회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신설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대전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그동안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면서 “홍콩 ELS 같은 불안전판매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과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빚과 높은 금리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진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광범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소비자·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과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3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 동반 하락

서울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
임대시장 월세화 현상 뚜렷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월세는 상승 폭을 키우며 임대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0.32% 떨어져 전분기(-0.34%)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서울은 보합(0.00%)에서 0.11%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9% 하락, 전세가격은 0.20% 하락, 월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0.65%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광주(-0.97%), 대구(-0.

81%), 경기(-0.64%), 인천·부산(-0.61%)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20% 떨어졌다. 수도권은 -0.17%로 낙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전분기 -0.02%에서 0.07%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0.71%), 인천(-0.57%), 대전(-0.44%), 광주(-0.37%) 등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0.30% 올라 상승폭이 전분기(0.20%) 대비 확대됐다. 서울(0.53%)·수도권(0.32%)·지방(0.22%) 모두 오름세를 보였으며 울산(0.72%)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가 상승한 배경에는 전세사가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된 점이 꼽힌다.

/전지원 기자 jiw13@

인도서 판매 넘어 생산·R&D까지 삼성·LG, 기술·생산 투트랙 가속

인도, K가전 핵심 생산기지 부상
현지 공장 증설로 연산능력 확대
R&D센터 중심 AI기술 개발 가속
중산층 소비확대로 시장 급성장
‘메이드 인 인디아’로 체질 전환

국내 가전업체가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를 기반으로 인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인도를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핵심 생산기지이자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인도 현지에 제조공장·판매법인·연구소 등을 잇달아 구축하며 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가구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형 가전에 대한 신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도 가전 시장이 지난 2019년 110억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210억달러(약 30조 1600억원)로 약 두 배가량 성장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17조 489억원, 순이익은 1조 4083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의 인도법인 역시 매출 3조 7910억원, 순이익 3317억원을 기록하며 현지 가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기준 인도 TV 시장에서 23.8%의 점유율로 9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및 세탁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LG전자 세탁기의 인도



LG전자 인도 푸네 공장 전경.

/LG전자

내 시장점유율은 33.5%, 냉장고 28.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양사는 현지 제조공장을 증설하며 생산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스리페름부르를 비롯해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에서도 스마트폰, 가전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스리페름부르 가전 공장에 약 17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밝히며 생산 거점 강화에 나섰다. 해당 공장에선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인도 매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최근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에 상장하며 공모가 기준으로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또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 8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국내로 조달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입된 자금은 인도 내 생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에도 신공장

을 구축 중이다. 이로써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 TV 200만대 등으로 늘어났다.

인도를 글로벌 R&D 거점으로 키우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인도 내 3개의 R&D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에서 가전과 스마트폰에 탑재할 각종 인공지능(AI)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LG전자는 벵갈루루의 SW연구소에 지속 투자해 AI, 시스템온칩(SoC)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고 있으며, 생산기지가 있는 노이다에서도 제품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전기업들의 제품 점유율은 단순한 판매량을 넘어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리 기술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최첨단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강화, 현지 밀착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SKS 서울’서 주방의 예술 완성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
감각적 키친라이프 제시
맞춤 설계·체형 공간 운영

LG전자가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SKS’의 전시관 ‘SKS 서울’에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한다.

LG전자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관 ‘SKS 서울’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SKS’ 리브랜딩에 맞춰 2017년부터 운영해온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논현 쇼룸을 전면 재단장했다.

‘SKS 서울’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918㎡ 규모로, 다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연출된 총 10개의 제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제품 전시 공간에는 총 5개의 ‘SKS’ 전용 공간을 마련, 몰테니앤씨, 아크리니아 등 이탈리아의 대표 명품 가구 업체 등과 협업해 ‘SKS’의 빌트인 가전들을 배치했다.

고객이 ▲컬럼 냉장고·냉동고 ▲컬럼 와인셀러 ▲얼음정수기 냉장고 ▲광파



LG전자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관 ‘SKS 서울’을 오픈했다. ‘SKS 서울’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918㎡ 규모로, 다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연출된 총 10개의 제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LG전자

오븐 ▲스팀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는 것은 물론, 별도 상담 공간에서 전문 디자이너에게 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감리에 이르는 맞춤형 공간 솔루션을 제안받는 것도 가능하다.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을 활용한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주방, 거실, 세탁실 등 다양한 생활 환경에 맞춰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핏 앤 맥스(Fit & Max, 이하 핏 앤 맥스)’를 비롯한 생활가전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핏 앤 맥스’는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 기술로 제품과 벽 사이의 틈을 4mm의 간격으로 최소화해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구현해준다.

이 밖에 4층은 ‘SKS’의 빌트인 주방 가전을 활용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 다이닝 공간으로, LG전자 멤버십 고객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5층은 일부 초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요리 강연을 진행하는 프라이빗 쿠킹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사장은 “‘SKS 서울’은 국내 고객들이 초프리미엄 키친라이프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방을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의 새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 6년째 톱5 수성… 현대차, 30위권 안착

삼성, AI 경쟁력으로 가치 상승
현대차, 전동화 전략 성과 확대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6년 연속 ‘글로벌 톱 5’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는 이 평가에서 글로벌 30위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더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DS(반도체) 부문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고용량 DDR5(Double Data Rate 5),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 등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AI 수요에 대응 중이다.

인터브랜드 측은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문에서의 AI 경쟁력을 확보했고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 제공과

AI 관련 반도체 집중 투자,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 수행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종합 브랜드 30위에 올랐다. 2005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 현대차는 최근 5년간 약 72%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뤘고, 전년 대비 약 7% 성장해 2년 연속 글로벌 브랜드 순위 30위권을 유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1967년 창립 이후 57년 만에 차량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인 HMGMA(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의 준공을 통해 첨단 제조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인터브랜드 관계자는 “현대차는 고객에게 필요한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 확장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지속적으로 출시했다”며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테스나, 1714억 반도체 테스트 장비 구매

‘테스트 명가’ 재도약 시동

국내 OSAT(외주반도체패키징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가 1714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도입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늘어날 테스트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두산테스나는 약 1714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반도체 테스트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산총액(7877억원)의 약 21.8%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다. 이번 도입하는 장비는 일본 어드반테스트와 인터액션, 국내 세메스 등 주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사로부터 공급받는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테스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테스나는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고, 반도체 테스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산테스나는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입항 부진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들어 고화소 이미지센서와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물량 확대로 실적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두산테스나 관계자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분야는 선행투자가 매출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GS칼텍스,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3개 제패

레드닷, IDEA,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GS칼텍스가 에너지플러스 앱을 통해 주유고객의 편의성은 물론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사용자 경험을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5 굿디자인 어워드(System and Service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 일본디자인진흥원(JIDP)이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의 ‘레드닷’,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GS칼텍스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개 부문,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를 석권하게 됐다. 이와 함께 뮤즈 디자인 어워드(Muse Design Award)와 뮤즈 크리

에이티브 어워드(Muse Creative Award)에서도 수상하며 총 5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6관왕을 차지한 세계 최초의 정유사가 됐다.

GS칼텍스는 2021년 에너지플러스 앱을 출시해 주유 경험과 혜택을 혁신해왔다. 대표 기능인 ‘바로주유’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결제수단 등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 적립, 결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서비스다. 이후 앱 속도 개선 등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기능 개선을 지속해왔다.

올해에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카플레이(Car Play)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에서 GA-ASI와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 무인기 시장 본격 진출

美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

GA-ASI와 무인기 공동개발
한미 업체간 방산협력 본격화
손재일 대표 “무인항공기업 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과 손잡고 글로벌 무인기 사업 진출에 나선다. 한미동맹을 넘어선 한미 업체간 방산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에서 GA-ASI와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데이비드 알렉산더 G

A-ASI 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GE-STOL 시연기 1대를 개발해 오는 2027년 초도 비행을 진행하고 생산, 마케팅 등에서 협력해 2028년 구매국에 대한 첫 인도를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연료 계통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임무 장비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STOL 기체를 조립 및 생산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3000억원 포함 총 7500억원을 무인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이다.

GE-STOL은 기존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들이 보통 1km 이상의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약 100m 활주만 확보해도 이착륙이 가능해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지난해 11

월에는 일반적인 항공모함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해군의 상륙함인 독도함 갑판에서 이륙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고, 대 무인기 작전, 전자전, 대 잠수함전을 수행할 수 있다.

파트너사인 GA-ASI는 향후 10년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GE-STOL에 대한 구매국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일본, 호주 등이 GA-ASI사의 무인기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 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등 AX 지원 확대

과기부·산업부 업무협약 체결
한성숙 장관 “새로운 성장 기회 마련”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성공적 AI 전환(AX)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역량을 합쳐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부 장관은 “AI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인프라만 잘 갖췄다고 해서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AX는 AI 모델만 잘 만든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을 함께한다.

아울러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김경관 산업부 장관은 “여기서 AX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

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며 “정책 하는 부총리와 산업부, 중기부장관 모두 기업에 있었던 만큼 기존 관료와 다른 입장에서 한상의 팀을 이뤄 대한민국 산업이 점프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오션, 차세대 전략 수상함 공개

“K-해양방산 대표상품 만들 것”

한화오션이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전격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14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함정 기술과 전망을 교류하는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에서 어성철 특수선사업부장(사장)이 신규 플랫폼의 개발 의미와 대안을 제시했고 ‘미래함정 발전 방향’, ‘성능 향상 방안’, ‘기술 트렌드’ 등 발표가 이어졌다.

‘차세대 전략 수상함’ 공개와 설명을 맡은 어 사장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해양 패권 경쟁 심화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이 이번에 공개한 함정은 해상·공중·우주·사이버로 확장되는 다중영역전에 대응하도록 전투성능·생존성·운용 효율성·임무 유연성을 높인 설계가 특징이다.

외형은 파랑관통형 선수와 텀블홈(Tumblehome) 선체를 적용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선체는 콤팩트하지만 화력은 극대화해 소수 승조원으로 장기 생존이 가능하도록 했고, 탄도미사일·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화오션이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의 항해 상상도.

/한화오션

다층 방어체계와 자동화·AI 기반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구체 사양으로는 다수·다종의 무장을 갖춘 전투성능, 스텔스 설계 및 기가급 초고강도강을 사용한 충격 강화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의사결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함교, 승조원의 쾌적한 승선생활을 위한 인간공학 설계, 다수·다종의 무인체계 탑재를 위한 미션 베이(Mission Bay) 등을 제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기본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 앞으로 20~30년 이상대해민국 해군의 최전선에서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고 K-해양방산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수상함으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현대L&C,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 오픈

원스톱 건자재 솔루션 공간 조성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Studio H)’를 열었다.

15일 현대L&C에 따르면 스튜디오 H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전시 공간 곳곳에 현대L&C의 자재가 적용돼 방문객이 자재의 질감·내구성·시공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전시장 지하 1층에는 현대L&C의 인테리어필름·바닥재·벽지 등 200여 종의 건자재 샘플을 전시하고, 조명과 조도를 다양하게 구성한 라이팅 존(Lighting Zone)’을 마련해 같은 자재여도 빛의 조건에 따라 색깔과 질감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1층 로비에는 인조대리석 ‘하넥스’로 곡선 무늬의 벽면을 구현하고 현대L&C의 프리미엄 강화 천연석 ‘칸스톤’을 종류별로 전시해 갤러리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스튜디오 H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에서는 현대L&C의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스’를 비롯해 현대L&C의 중문·벽장재·시스템 선반 등을 이용한 주방·욕실·드레스룸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현대L&C 관계자는 “스튜디오 H는 다양한 자재의 비교·체험뿐 아니라 프로젝트 협의 및 네트워킹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한 원스톱 건자재 솔루션 공간”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인테리어 전문가를 위한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해 최신 자재 동향과 디자인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솔로지스틱스, AEO ‘A등급’ 재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2030년까지 A등급 자격 유지

한솔로지스틱스가 관세청 주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갱신 심사에서 ‘A등급’ 재인증을 받았다.

15일 한솔로지스틱스에 따르면 AEO 인증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령에서 정한 보안 표준에 따라 ▲법규 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약 60~80여 개 항

목을 종합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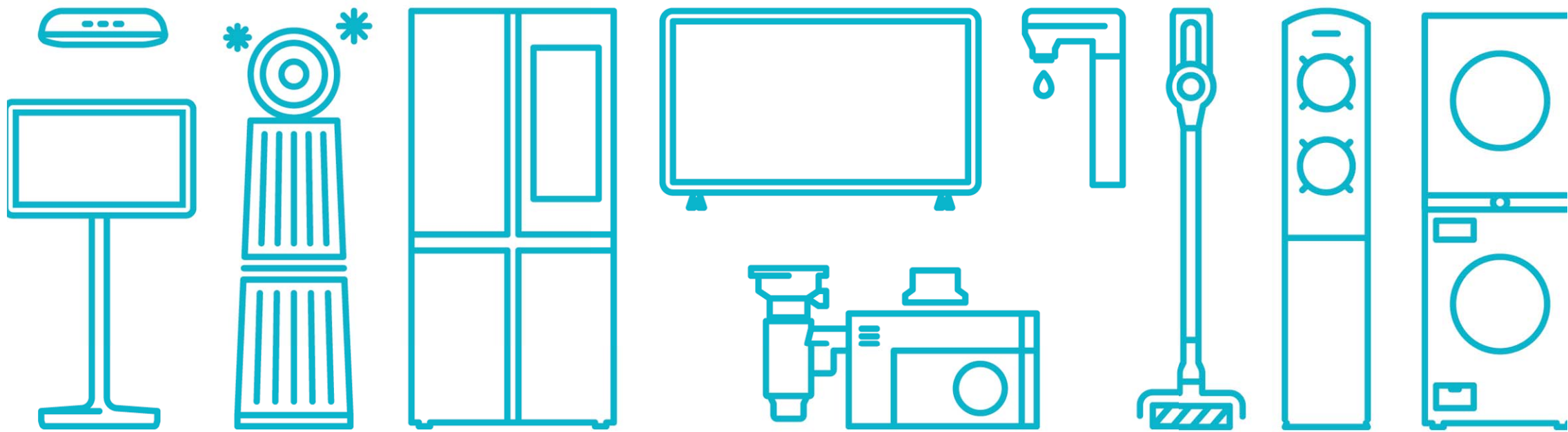
특히, AEO 인증 기업은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거래선 확보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지난 2012년 화물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부문에서 최초로 AEO 인증을 최초 취득한 뒤, 2015년과 2020년 2차례 갱신을 거쳐 올해 세번째 갱신에 성공했다. 이번 인증으로 2030년까지 AEO A등급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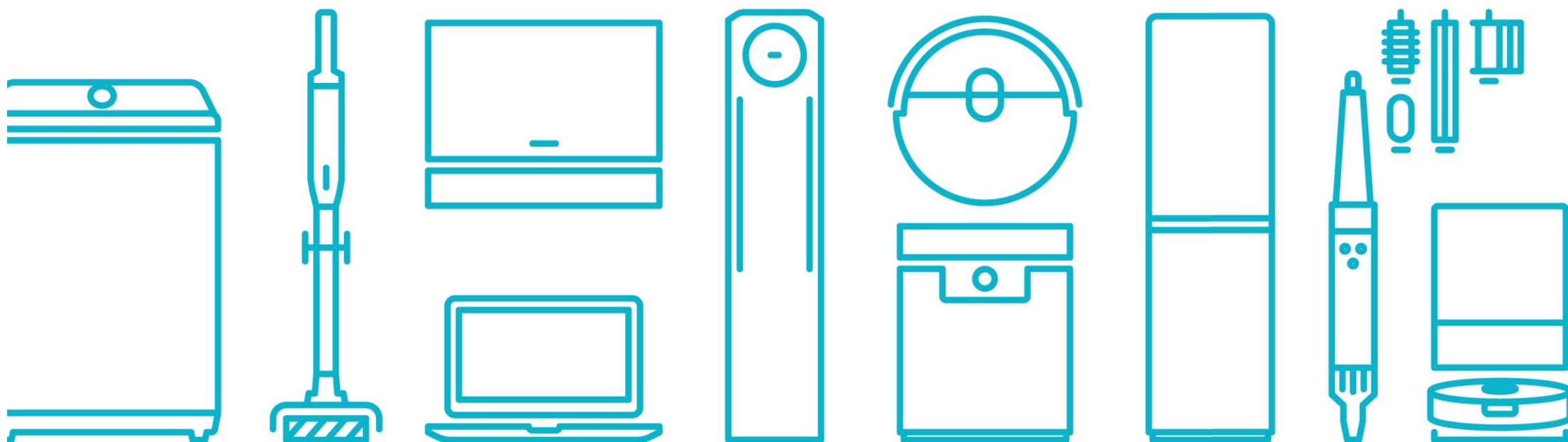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구글·애플 인앱결제 ‘30% 룰’ 국내 개발사·이용자 부담으로

과방위 국정감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수수료 26% 낮춘 썬스 외부결제

방통위, 과징금안 의결 지연에 국내 콘텐츠 생태계 고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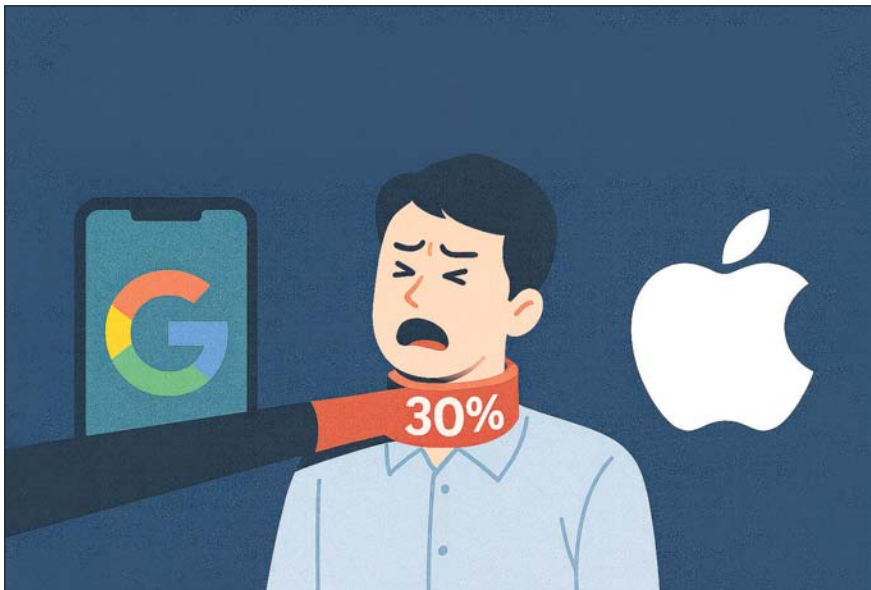
인앱결제 ‘30% 룰’이 여전히 한국 개발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26%로 낮춘 ‘썬스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630억 원 규모의 과징금마저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사이, 국내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구조에 종속돼 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듯했으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6%로 소폭 낮추는 ‘썬스’를 부렸다. 여기에 결제대행(PG)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들의 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인앱결제 ‘30% 룰’이 한국 개발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미지.

고스란히 중소 개발사들에 돌아가고 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간 이어지면서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지고 회사도 힘든 상황에 부딪혔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토종마켓은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시장 선순환을 꾀하지만, 구글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크리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30% 수수료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개발사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630억 원으로 조정된 과징금은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겹치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의결 및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의결을 미루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그 부담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자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이 표류하는 사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더니 사실상 26%짜리 다른 인앱결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라며 “국내 마켓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軍 통신중계 드론 작전반경 확대

코난테크놀로지 등 4개사와 ‘맞손’ 상용망 800MHz 등 저주파 대역 활용

SK텔레콤은 군용 드론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편진·코난테크놀로지·콘텔라·플렉토리와 통신 중계 드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남산 SKT 사옥에서 열렸으며, 나경환 SKT 엔터프라이즈솔루션본부장, 김경훈 편진 사업전략본부장, 김규훈 코난테크놀로지 국방AI사업부장, 김태연 콘텔라 MTS사업부문장, 김태훈 플렉토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통신 중계 드론은 통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무선망을 중계해 공격·정찰용 드론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군은 이음 5G 주파수를 활용 중이지만, 고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 범위가 제한돼 작전반경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통신 중계 드론은 상용망의 800MHz 등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다. 저주파는 회절성이 높

고 도달 거리가 길어, 산악이나 도심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수의 중계 드론을 교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핸드오버(handover) 기술을 적용해, 한 대가 손상되더라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사는 전문 영역별로 기술을 맡는다. SK텔레콤은 무선 회선, 핸드오버 기술, 실시간 영상 관제를 담당하며, 저주파 대역과 영상 관제 시스템 ‘T라이브캐스터’를 결합해 실시간 드론 영상을 후방 조종사에게 전송한다. 편진은 드론 무선품질 측정과 AI 기술을, 코난테크놀로지는 옛지 전술 장비를 제공한다. 콘텔라는 위성 기반 이동기지국을, 플렉토리는 미니 PC 기반의 이음 5G 코어 장비를 맡는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용망 기술을 군 통신 체계에 적용하고, 드론 작전 반경 확대와 국방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B, AI로 고객불편 사전 감지·해결

품질관리시스템 ‘아쿠아’ 도입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B tv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해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아쿠아(AQUA, Advanced Quality&Usage Analytic system)’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QUA는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치하는 고객경험지표(CE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위해 모든 B tv 셋톱박스에서 매일 22억건이 넘는 데이터를 수집해 24시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이 시스템은 방송설비, 네트워크, 셋톱박스, TV 등 전체 서비스 구간의 약 740개 품질 지표를 분석한다. AI는 이를 토대로 셋톱박스별 서비스 품질을 S~D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잠재 불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B tv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해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AQUA’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SKB

편 고객’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이나 VOD 재생 지연 등의 문제를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 사례가 연간 약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해외 게임사 책임성·투명성 강화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시행
민원 편의성 ↑, 위법행위 감독
중소 게임사 진입장벽 우려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운영할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업체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대형 게임사에 실질적 책임 체계를 부여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절차가 강화되면 중

소 외산 게임사의 국내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이번 제도는 국내 이용자가 언어 장벽이나 해외 본사 접근 문제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유통이나 사행성 조장 등 위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한국어 서비스나 국내 결제 수단 제공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앱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지정 의무에서 제외한다.

지정 요건은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에서 일평균 1000건 이상 다운로드된 게임 배급·제공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해 문제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문제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은 문제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 방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각종 보고와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년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부는 국문·영문 안내서를 제작해 해외 기업에 배포하고, 향후 국내 법인 우선 지정과 유통 중단 명령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라며 “해외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모빌리티, ‘로봇발레 주차’ 상용화

케이엠피크-HL로보틱스 ‘맞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피크, HL로보틱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일반 주차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로봇발레 주차 서비스’를 선보였다. 주차 로봇 기술을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역량과 결합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 형태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북도청,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력해 청주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주차장에 구축됐다.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 구역 중앙 노란선에 정차하고 시동을 끈 뒤 키오스크를 통해 입차를 신청하면 된다. HL로보틱스의 주차 로봇 ‘파키(Parkie)’가 차량을 들어 올려 자동으로 주차 구역으로 옮긴다. 출

차 시에는 카카오톡 알림톡 링크로 출차 요청을 하면 로봇이 차량을 출구 방향으로 돌려 세워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차로봇을 실질적 이용 서비스로 구현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는 CES 2024와 FIX 2025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입주기만 사전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실증을 통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생태계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회사는 향후 법·제도 정비에 따라 전국 주요 주차장으로 로봇발레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외국인 쓸어담을 때 개인투자자 손 털었다… ‘ETF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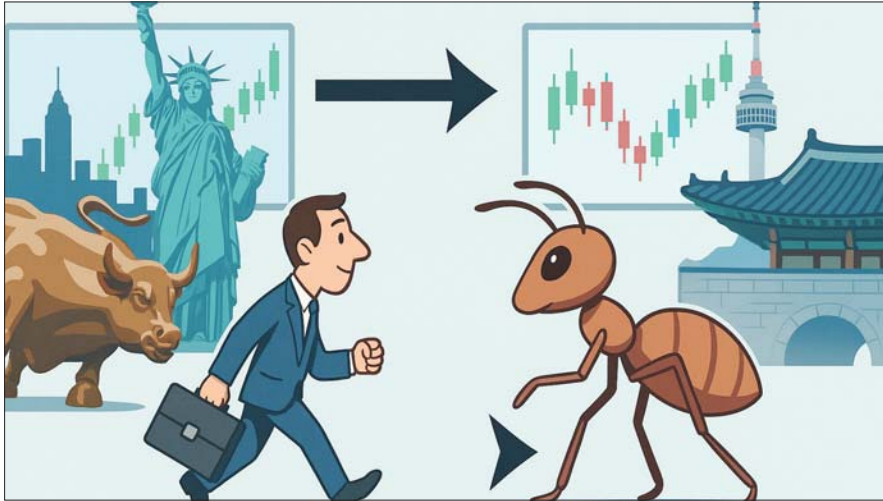
개미, 3개월간 증시 2배 하락 베티 ETF 6062억 매수… 손실률 26%

美·英 시장서 총 2047억 弗 유입
방산 중심 5주 연속 패시브 자금
외국인-개인 수익률 6배 벌어져

국내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선 반면,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을 점치는 모습이다. 수익률 격차도 6배까지 벌어지면서 개미의 투심이 반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2배 하락에 베티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6062억원 순매수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코스피는 12.69% 급등하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손실률은 25.71%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동일 기간 개인투자자가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상품이다. 가



ChatGPT로 생성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엇갈린 투자심리’ 관련 이미지.

장 많이 ETF는 ‘TIGER 미국S&P500’으로 6975억원을 사들였다.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최근 3개월 간 ETF 순매수 상위 10위권에 국내 증시 관련 ETF는 인버스 상품을 포함해 단 2개뿐이다. 나머지는 미국 증시, 금, 머니마켓 형에 집중했다.

반면, 해외 상장 ETF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국내 ETF 시장은 휴장으로 자금

유입이 없었지만, 미국 ETF 시장에는 1239억달러, 영국 시장에서는 808억달러가 유입됐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와 ‘VanEck Defense’ ETF 등 방산 ETF를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며 “해외 ETF 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은 5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미국 ETF 시장에서 MS

CI 신흥국, MSCI 한국 지수 ETF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총 3조2000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ETF 시장에서는 MSCI 신흥국 지수와 방산 ETF를 중심으로 9000억원이 들어왔다.

이는 올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주식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주요 지수의 한국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52.42% 뛰었고, 올해 2월 10%를 하회했던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도 9월 말 11.0%까지 상승했다. 전날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한국을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국가로 평가하며, 신흥시장 랠리를 주도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4조2000억원을 털었다.

다만 개미의 국내 증시 불신이 회복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가 약 6배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일 기간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모든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개미들이 선택한 종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를 즐겼다. 삼성전자(6조6406억원), SK하이닉스(1조2439억원), 삼성전자(8803억원)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으며, 두산에너빌리티(6171억원)와 삼성전기(5002억원)도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0.62%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한화오션(7152억원), 알테오젠(7145억원), 네이버(5343억원), SK텔레콤(3646억원), 삼성SDI(3595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다만 한화오션과 알테오젠, SK텔레콤 등은 불장에서도 평균 4.80% 하락했다. 이외 2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도 9.62%에 그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HD현대마린·에이피알 MSCI 편입 유력

시총 4조 오리온은 편출 가능성
11월 정기리뷰 결과 내달 6일 발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11월 정기 리뷰를 앞두고 HD현대마린솔루션과 에이피알의 지수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보고서를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전부터 편입 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해온 상태이며, 편입 시 수급 영향 규모는 약

128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에이피알 역시 MSCI 미포함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다”며 “현재 시총이 편입 기준치(9조3000억 원)보다 약간 낮은 9조2000억 원 수준이지만, 오리온이 시총 부족으로 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에이피알의 편입 시 예상 수급 규모는 약 21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오리온은 현 시가총액이 4조 원으로, 편입 유지 최소 조건인 4조2000억 원에 못 미쳐 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원은 “오리온 이후로 시총이 낮은 LG생활건강(4조6000억원)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4조9000억원)는 기준선을 상회해 편출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번 MSCI 11월 정기 리뷰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내달 6일 발표된다. 다만 미국 추수감사절 일정으로 인해 편출입 종목의 주가 기준일은 이달 14일부터 27일 사이로 평시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로빈 그루(Robyn Grew) MAN그룹 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나 글로벌 금융상품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만 그룹과 금융상품 등 협력 확대

국내 맞춤형 상품전략 등 논의

한국투자증권은 15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과 국내에서 글로벌 금융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한국을 찾은 로빈 그루 MAN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을 만나 국내·글로벌 투자 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 맞춤형 상품 전략, 신규 공동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크레딧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MAN 그룹과 협업해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중심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美 반도체 지수 3배 추종 ‘SOXL’ 1600억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하락장은 기회’ 패턴 재현
ETHU 420억, MSTU 350억 순매수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로 요동치자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저가매수’에 나섰다. 반도체와 가상자산 관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순매수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하락장은 곧 기회’라는 서학개미의 특유의 투자 패턴이 재현됐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13~14일 이틀간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S ETF(SOXL)’를 1억3290만달러 매수, 2052만달러 매도하며

총 1억1237만달러(약 1600억원)를 순매수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미국 반도체 업황에 베티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더리움 선물 일일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VOLATILITY SHARES TRUST 2X ETHER ETF(ETHU)’도 2931만달러(약 420억원) 순매수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의 일일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T-Rex 2X Long MSTR Daily Target ETF(MSTU)’가 2439만달러(약 350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 1439만달러 ▲Joby

Aviation(조비에비에이션) 1313만달러 ▲NVIDIA(엔비디아) 1191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LL 3X ETF(KORU)’가 1091만달러(약 156억원) 순매수로 10위권에 포함되며, 한국 증시에 대한 간접·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나친 공포국면에 진입하진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락이 장기화되고 상승 추세가 꺾일 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은 인공지능(AI) 관련 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상승 추세가 결정되고 있는데 무역 분쟁으로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 프리미어 마이PB 멤버스’ AUM 1조

PB서비스 디지털 환경 맞춰 재구성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의 총 관리자산(AUM)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심이던 기존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구성했다.

디지털·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고

객도 전담 PB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상담과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투자 상담 외에도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와 프리미엄 혜택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하은 기자

美관세·정치불안 겹쳐 외투 위축 3분기 누적 206억달러… 18% 감소

산업부, 3분기 FDI 동향 발표
제조업 투자 29% 급감세
EU·日·中 투자 모두 감소
AI·유통 분야 선방세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크게 뒤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투자가 위축됐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 도착액은 2.0% 줄어든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에 더해,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M&A 시장 위축이 겹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 투자 급감(-29.1%)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 및 자금집행 전략을 재조정할 결과로 풀이된다. 전기·전자(-36.8%), 화공(-13.8%), 기계장비·의료장비(-43.3%) 등 수출주력 업종이 일제히 위축된 반면, 운송용기계(+27.2%), 식품(+198.5%) 등 일부 내수형 업종만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 뚜렷하다. 미국이 유일하게 투자 규모가 58.9% 증가(49억5000만 달러)한 반면 EU(-36.6%), 일본(-22.8%), 중국(-36.9%) 등 주요국 투자는 모두 감소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대부분 미국의 통상 정책에서 비롯되다 보니, 미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유법민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5년 3분기 외국
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비해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특히 첨단제조와 AI 분야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AI 소프트웨어 등 미국의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이 투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유 정책관은 "통계상 세부 분류는 어렵지만,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발 M&A 투자는 절반 가까이 감소(-46%)했다. 유럽 내 경기 둔화와 통상 리스크로 대규모 인수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그린필드·M&A형 투자가 모두 위축됐다. 일본(-22.8%)과 중국(-36.9%)도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지난해 워낙 신고 실적 이커 역대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감소는 '역기저효과'에 가깝다. 유 정책관은 "3분기 실적도 역대 2위 수준으로 이례적인 급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형별로는 M&A형 투자가 전년 대비 54.0% 급감(28억8000만 달러)했다. 올해 초 MBK의 홈플러스 인수 무산 등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유 정책관은 "M&A 부진이 전체 FDI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4분기

중 진행 중인 일부 대형 M&A가 성사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전반적으로 6.9% 감소(111억1000만 달러)에 그쳤고, 유통(+122.5%)과 정보통신(+25.7%) 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디지털 전환 등 비제조 분야의 확장이 제조업 투자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투자 감소(-29.4%)가 두드러졌다. 서울(-32.8%), 경기(-35.7%) 모두 줄었고, 제조업 중심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남(+120.2%), 부산(+215.4%)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데이터센터, 소재산업 신규 설비투자가 유입되며 증가했다.

유 정책관은 "M&A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는 어렵지만, 안보심이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절차상 지연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투자심사에 로를 해소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투자 실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후속 투자 확대를 위한 FDI 이행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OTT·음원·쇼핑몰 '기만 영업' 적발

공정위, 쿠팡·웨이브·박스 제재
소비자 유인행위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음원·온라인쇼핑몰 분야 주요 사업자들의 기만적 영업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엑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엑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팝업과 결제 버튼을 이용해 소비자가 '즉시 동의'를 누르도록 유도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청색으로 크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백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어 소비자가 모르게 인상 동의를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금 인상에 동의하게 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엑스는 자동결제형 구독상품의 해지 절차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두 회사는 '일반해지'(다음 결제 차단형)만 안내하고, 즉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중도해지' 관련 정보는 노출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국산 포도 신품종 3종 본격 보급

'코코볼'·슈팅스타·홍주씨들리스'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 국산 고품질 포도 품종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가 본격 보급 단계에 들어섰다. 농진청은 이들 신품종이 시장에 안착하면 '샤인머스켓'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다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샤인머스켓'은 2015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편의성과 평균 18브릭스의 높은 당도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품종 단일화에 따른 가격 불안과 병충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대체 품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보급하는 세 품종은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맛·식감·향 등에서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닌다.

'코코볼'은 코코아 빛의 얇은 껍질과 단단한 과육이 특징으로, 손으로 빳은 듯한 자연스러운 결이 돋보인다. 평균 당도는 19브릭스 이상이며, 송이가 성글게 달려 알 숙기 작업이 용이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슈팅스타'는 이름처럼 별빛이 흩뿌려진 듯한 껍질 색과 솜사탕 향이 특징이다. 당도 19브릭스 이상에 아삭한 식감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홍주씨들리스'는 '씨 없는 빨간 포도'로,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강점이다. 평균 당도 18브릭스 이상이며, 상주·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약 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전체 목표 보급 면적은 100ha로 추산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1인당 일자리 0.44개… 20년 만의 '취업한파'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 1564만명
제조업 4개월째 감소 이어져
구직 늘고 구인 줄며 한파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4개로 떨어지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1.2%) 늘었다.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제조업 근로자는 2023년 10월 이후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도 2만7000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6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 감소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건설업 역시 1만8000명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뒷걸음질,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9만명 줄며 3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40대도 2만5000명 감소하며 고용 기반이 약화됐다. 특히 40대는 건설업(-1만4000명), 제조업(-9000명), 도소매업(-7000명)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5000명

증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도 소폭 증가했다.

9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지난해 같은 달(0.50개)보다 낮아졌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3.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3만7000명(10.8%)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하락했다.

전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분자에 해당하는 구인 감소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잡코리아 채용공고 모집 인원이 7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 증가하는 등 민간 채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작업중지권 포상제 본격 시행

협력사 423건 선제 중단
자율안전문화 전국 확산

한국남부발전이 '작업중지권 포상제'를 시행하며 현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14일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월간 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사고위험을 사전에 차단한 협력사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순까지 현장에서 총 423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추락방지 안전망 미설치, 비계작업 중 안전고리 미착용 등 위험요소를 발견한 협력사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사례다. 이러한 '현장

중심' 안전 문화 속에서 남부발전은 2018년 이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중지권 우수자 포상'과 함께, 직원들의 이름을 새긴 '안전모 실명 스티커 부착식'도 진행됐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는 용기야말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성숙한 안전문화의 척도"라며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회사는 언제나 포상과 격려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ALAN WALKER LIVE
IN KOREA

2025.10.18. (토요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축구경기장

SeoulAuction X

S27
ST. ENTERTAINMENT



BIGC. NOL ticket

김해시, ‘열관리·초안전센터’로 미래차 혁신기술 거점 도약

오는 20일 명동일반산단서 착공식 열관리센터, 부품개발·사업화 돕고 플랫폼 통해 기업협력 체계 강화 초안전센터, 새시 모듈 등 기술지원

김해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 2곳을 동시에 짓는다.

김해시는 오는 20일 한림면 명동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기술지원센터와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술지원센터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두 센터는 미래 자동차 기술 혁신단지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2026년 각각 준공된다. 지난 4월 문을 연 미래자동차 베티얼센터와 함께 미래차 전환과 기술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래자동차 기술 혁신단지는 총면적 2만 7850㎡, 총사업비 870억원 규모로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이다.

미래자동차 베티얼센터, 열관리센



김해시 미래자동차 기술 혁신단지 전경.

/김해시

터, 초안전센터, 고중량물 이송자율이 동체 시험평가센터가 2027년까지 차례로 완공되면 지자체·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열관리센터는 공사비 45억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1377㎡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5월 준공한다. 열관리 부품 개발과 사업화를 돕고, 플랫폼을 통해 대·중·소 기업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동반 성장을 이끈다.

미래차 핵심 기술인 열관리 시스템은 차량 냉난방 모듈, 배터리 온도를 조절하는 쿨링 모듈,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미래차의 배터리, 모터, 전력전자장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적절한 열관리가 없으면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열관리 시스템은 안전성 확보, 주행 효율 향상, 부품 성능 향상 등 미래차의 기술적 강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초안전센터는 공사비 65억원, 지상

2층, 연면적 1490㎡ 규모로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새시 모듈, 파워트레인, 통합제어 부품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 차량 개발은 실제 부품을 만들어 성능을 확인했지만, 초안전센터는 디지털 트윈 기반 HILS·VILS 기술을 활용한다.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검증으로 실차 기반의 다양한 가상 주행 시나리오를 구현해 물리적 시험과 비용,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박종환 경제국장은 “김해시의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도내 1위지만 출하액 2위, 부가가치는 3위에 머물고 있다”며 “기술 혁신단지를 통해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미래차 부품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매출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반려동물과 이색 가을 트래킹

영덕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가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제1회 영덕 멍멍 트래킹’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을 걷고, 행동 교정 교육부터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관광 이벤트로 꾸며진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 26일 영덕군 별파랑공원 일대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트래킹 프로그램 ‘제1회 영덕 멍멍 트래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국 1400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해 영덕군이 추진하는 ‘블루로드 반려견 동반 트래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

사천시가 지역 항공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연다.

사천시는 오는 22일 사천체육관에서 ‘2025년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천시가 항공산업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 및 관련 기업 33개사와 구직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내일부터 ‘부산금융주간’ 행사

부산시는 오는 17~18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2025 부산금융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다. ▲26개 금융 전문 세미나 ▲금융 교육 ▲기업 존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전망과 금 현·선물 투자, 노후 준비와 연금 관리,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 전환에 대한 전망 등 평소 시민들이 깊이 있게 알기 어려운 금융 정보를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8개국·13개市 ‘공업축제’ 방문

울산시는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2025 울산공업축제’ 참가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울산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 대표단은 ▲일본 하기사·니가타시·구마모토시·시모노세키시 ▲중국 창춘시·우시시 ▲미국 휴스턴시 ▲체코 모라비아실레지아주 ▲튀르키예 코자엘리시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칸호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등 8개국 13개 도시 106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 ‘포항~영덕 고속도로’ 경제 파급효과 기대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총회 간담회서 유치 전략 설명·협력 방안 논의

전라남도 나주시가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도, 화순군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운명을 바꿀 핵심 과제”라며 “당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

로 온실가스 배출 없이 대용량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이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상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인공태양 연구 기반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질 안전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확보했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 중이다. 또한 핵융합 관련 학계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

/나주(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오는 11월 개통 앞뒤

포항시는 오는 11월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동해안 광역경제권 조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이미 개통된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추진 중인 영일만 횡단대교(이하 영일만대교) 완공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 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총 연장 약 30.92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에서 영덕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20분 이상 단축된다.

시는 이번 개통을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 속에서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포항~영덕 고속도로 전경.

등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울산~포항 고속도로와의 연계는 남부권 산업도시와 환동해 물류 거점인 포항을 직접 연결해 산업벨트를 확장시키며, 장기적으로 항만·철도·고속도로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해 국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대구마라톤대회’에 4.1만명 참가신청

접수 시작 21일 만에 조기 마감

대구시는 내년 2월 열리는 ‘2026대구마라톤대회’의 마스터즈 참가 접수에 총 4만1104명이 신청을 완료해 접수 시작해 21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10km 종목은 1만 5000여명이 접수 개시 당일 마감되고 건강달리기 5000여명은 접수 3일 만에 마감됐으며, 풀코스 2만여명도 21일 만에 마감되면서 전년보다 60일 앞당겨 조기 마감 기록을 세웠다.

종목별 접수 인원은 ▲풀코스 2만5명 ▲10km 1만5648명 ▲건강달리기 5451명이며,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1만7901명, 타지역 2만1956명, 해외 124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 대구마라톤대회’.

해외 참가자 수는 지난해 315명에서 약 4배나 증가해 대구마라톤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48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만2836명, 20대 5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남도, ‘맘프’ 20주년 기념 다채로운 행사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경남도가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인 ‘맘프’의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창원 용지문화공원 일원에서 2025 맘프(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를 연다고 밝혔다.

‘20년의 동행, 다름을 잊고 다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의 문화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2005년 지역 행사로 출발한 맘프는 현재 매년 25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누적 방문객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올해 주빈국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오는 24일과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성산아트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마두금을 중심으로 몽골 국립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및 전통예술원의 협연이 펼쳐진다.

25일과 26일 이틀간 포정사 공원에서 몽골 나담축제를 테마로 한-몽 전통 씨름대회와 게르, 샤가이, 활쏘기 등 전통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 30분 용지문화공원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모두합창단, 이송환밴드, 뮤지컬 배우 강홍석이 출연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맛집 메뉴 즐기고 명품뷰티 체험… ‘쓱닷컴’ 상품 한자리에”

Q 르포

SSG닷컴 ‘美지엄’ 가보니

SSG닷컴의 첫 오프라인 페스타 ‘미지엄(美지엄)’이 15일 서울 성수동에서 문을 열었다. 이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쓱닷컴이 엄선한 100여 개의 그로서리·뷰티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SSG닷컴이 추구하는 상품 운영 전략과 플랫폼의 신뢰도를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입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 만난 SSG닷컴의 핵심 상품 전략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단독’ 상품과 이마트의 막강한 소싱 역량에 기반을 둔 ‘신선식품’으로 압축된다. 행사장 1층 고메 스트리트에서는 유명 셰프와 협업해 출시한 단독 간편식이 방문객을 맞는다. SSG닷컴은 올해 줄서는 맛집 메뉴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으며 현장에서는 셰프가 직접 요리 철학을 나누는 쿂�&토크쇼를 통해 그 의미를 더했다.

2층에 마련된 이마트몰 신선 라운지는 이마트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SSG닷컴의 사업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30여년 업력의 이마트와 동일한 고품질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전국 100여 개 PP(Picking&Packi



1층에 위치한 딜라이트 존. CJ제일제당이 연 체험 부스. (원 사진)입장하자마자 시식할 수 있는 셰프컬렉션 제품.

19일까지 ‘셀렉티드 뮤지엄’ 콘셉트 엄선 그로서리·뷰티 브랜드 참가 100여곳 중 49곳 첫 오프라인 팝업

1층 고메 스트리트서 간편식 시식 BEAUTY OF SSG관 57팀 대기

ng)센터 기반의 쓱배송과 1시간 내 배송 바로픽 등 이마트 점포를 활용해 배송 경쟁력을 강화해 온 SSG닷컴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행사는 고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파트너사에게는 새로운 소비자 접점을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장 참여 파트너사 100여곳 중 절반에 가까운 49곳이 이번 ‘미지엄’을 통해 처음으로 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팝업에 진출했다.

행사장 입장 직후 3층에 위치한 ‘BEAUTY OF SSG’관에 입장하려 했지만 대기 팀만 57팀, 대기시간만 40분 이상 잡혀 있었다. 백화점이 아니고서는 만나보기 힘든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기 때문. 현장에선 친구추가를 통해 간단한 샘플을 제공하거나 내 피부 톤을 직접 알아보는 체험형 콘텐츠가 준비돼 있었다. ‘겔랑’, ‘SK-II’, ‘바이레도’, ‘돌체앤가바나’ 등 럭셔리 브랜드의 참여는 SSG닷컴의 플랫폼 신뢰도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지엄은 4개 층, 6개 테마 공간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1층 딜라이트 존에서는 CJ제일제당, 농심 등 대표 식품 기업과 유명 맛집 부스가 운영된다. 3층 스위트 존에서는 스타벅스, 하겐다즈 등 인기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시식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 공간들은 눈길을 끌었다. CJ제일제당은 직접 체력 테스트와 건강 확인을 하며 참여하는 ‘GYM해봐’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벤스 체험 공간은 아이스크림 제품을 직접 맛보며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층 미지엄 스테이지에서는 유망 인

디 뮤지션들의 버스킹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16일 박소은·거니·프롬, 17일 연정·전진희·시소, 18일 서자영·다린·정수민, 19일 이지카이트·소이에·태종 등이 참여한다.

SSG닷컴은 고객 점점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현장 곳곳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할인쿠폰 등 온라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가 종료되는 19일까지 온라인에서는 참여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그로서리 미지엄 기획전도 함께 열린다.

이명근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브랜드사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을 계속 확대해 신뢰도 기반 플랫폼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SG닷컴이 선보이는 오프라인 페스타 ‘미지엄’.

/손종욱 기자

이마트

나주배·제주감귤 등 가을 햇과일 대축제

이마트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가을 햇과일 대축제를 열고 다양한 제철 과일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 이후 수확해 당도가 높은 나주 신고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또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단감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하며, 홍시는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본격 출하되는 노지 사인머스켓은 행사 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며, 노지 타이벡 감귤과 제주감귤도 함께 선보인다. 밤은 이달 16일부터 나흘간 봉지에 직접 가득 담아가는 무한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스테비아 대추방울 토마토는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하고, 사과대추와 영암무화과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확대한 농산담당은 “저렴하게 제철 과일들을 즐기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과일 행사를 준비했다”며, “과일의 경우 수확에서 소비까지 리드타임이 짧아 명절 전 후 풀린 물량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칠성음료

간송미술관 협업 위스키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

롯데칠성음료가 간송미술관과 협업한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스코틀랜드의 고유어인 ‘게일어(Gaelic語)’로 ‘기러기의 계곡’을 의미하는 ‘글렌고인’에서 착안해 ‘기러기, 두 문화의 하늘을 잇다’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영화 ‘취화선’으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 ‘오연 장승업’이 필묵으로 기러기를 그린 화조와 ‘노저래인’을 제품 라벨과 케이스에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285병 한정 판매 예정인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흑스헤드(Hogshead) 크기의 유럽산 ‘퍼스트필 올로로소 셰리 오크(First Fill Oloroso Sherry Oak)’에서 17년간 숙성된 싱글 몰트 위스키로 라즈베리와 바닐라, 서양배와 같은 다양한 향과 바나나, 시나몬, 베리류의 맛과 코코아, 건과일 등의 여운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술과 기러기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지며 한국 소비자를 위해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한정판 위스키”라며, “퍼스트필 올로로소 셰리 오크에서 17년간 숙성해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인상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촉촉하고 탄력있게… 집에서든 꿀피부 관리해요”

K-뷰티, 홈 디바이스 신제품

에이피알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 스킨부스팅 기능으로 ‘이중관리’

LG프라엘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 아모레퍼시픽 ‘온페이스’ 출시

국내 뷰티 시장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정조준한 신제품이 연달아 등장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15일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으로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하이 포커스 샷’을 출시 1년여 만에 재단장한 것으로 스킨부스팅 기능을 더했다. 피부 겉부터 속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적용해

온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기술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스킨부스팅 기술을 결합했다.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기술은 피부 4.5mm 근막층을 자극해 열 발생과 피부 조직의 응고 현상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열에 의해 피부 조직이 수축하며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1.8mm 진피층을 자극하는 스킨부스팅 기술이 피부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한다. 피부 탄력은 물론, 윤기, 보습, 모공 등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준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는 초음파가 바탕이 된 고가의 피부관리 기술을 가정용 디바이스에 구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도 올해 들어 새로운 홈 뷰티 디바이스 ‘LG프라엘’을 통해 뷰티기기 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수퍼폼 갈바니 부스터’를 내놓은 데 이어 이 날 두 번째 신제품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을 출시했다. 새로 나온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은 강력한 고주파를 기반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EP), 미세 전류(MC), 저주파 전기자극(EMS)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만능 제품이다. 피부 광채 개선, 탄력 생성, 이중 턱 전용, 모공 수축 등 총 5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체공학기술도 돋보인다. 디바이스 헤드가 피부에 밀착했을 때만 작동하며 기기의 실시간 움직임과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정밀한 센서를 탑재했다. LG 프라엘 브랜드 관계자는 “수퍼폼 써마샷 얼

톤을 원료로 사용했다. 여기에 강원 찰옥수수 시즈닝을 더했으며, 포장지에는 강원도 공식 캐릭터 ‘강원이’와 ‘특별이’를 넣어 지역 상징성을 강조했다.

해당 상품은 롯데마트와 슈퍼 전점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여 롯데유통망을 통한 지역 홍보에 나선다.

롯데마트·슈퍼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29일까지 2주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신제품을 포함한 4종의 과자를 균일가에 판매하며, 2개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 상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롯데리조트 속초 숙박권 등 강원도와 연계된 경품을 증정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슈퍼 ‘생생감자칩 강원옥수수맛’

강원특별자치도 협업 단독출시

롯데마트·슈퍼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한 ‘해대 생생감자칩 강원옥수수맛’을 이달 16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7월 부

산광역시와 협업한 ‘농심 자갈치×부기’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한정판 스낵은 강원 지역 농가에서 수매한 햇감자 75

유통업계, 자체 캐릭터 IP 강화... ‘팬덤형 소비’ 발 맞춘다

〈지식재산권〉

캐릭터 기반 브랜드 경험 차별화

오투기 ‘엘로우즈’ 사업 확장
농심 ‘너구리’ 현대적 재해석
삼양식품 불닭 ‘호치’ 글로벌화
할리스 ‘할리베어’ 마스코트 선택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캐릭터’가 단순한 마케팅 도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소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히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키링·피규어 등 굿즈 수집은 물론 SNS 인증, 콘텐츠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팬덤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유명 캐릭터와 의 단발성 협업을 넘어, 자체 캐릭터 IP(지식재산권) 개발에 속속 나서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캐릭터에 브랜드 스토리와 세계관을 입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MD·콘텐츠·공간 등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오투기는 2022년 자체 캐릭터 ‘엘로



너구리.

/농심



엘로우즈.

/오투기



할리베어.

/할리스

우즈’를 선보였다. 오투기 로고를 닮은 행복한 미식이 ‘뚜기’, 절대후각의 강아지 ‘마요’, 대식가 병아리 ‘차비’ 세 캐릭터로 구성됐다. 오투기의 심볼 마크인 ‘입맛을 다시는 어린이의 얼굴’을 모티브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다양한 컬래버와 오프라인 공간으로 캐릭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CGV용산아이파크몰에 문을 연 팝업스토어 ‘해피남남 라면가게’는 포토존·시음존을 갖춘 체험형 공간으로 브랜드 친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농심은 오랜 스테디셀러 ‘너구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캐릭터 굿즈와 체험 콘텐츠로 확장 중이다. ‘너구리 컵라면 스토퍼’는 완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호응을 얻었고, 명동·한강버스여의도 선착장 등에서 운영한 ‘너구리의 라면가게’ 팝업은 MZ세대의 ‘K-라면 체험 성지’로 입소문을 탔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캐릭터 ‘호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IP 비즈니스를 확대 중이다. 자회사 ‘삼양애니’를 설립하고 캐릭터 콘텐츠와 커머스 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최근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호치 팝

업스토어’에서는 다양한 굿즈가 전시·판매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또한 빨간 병아리 캐릭터 ‘페포’를 앞세운 유튜브 채널은 개설 1년 만에 누적 조회 수 1억5000만 회를 기록했으며, 구독자의 99%가 해외 팬으로 글로벌 캐릭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카페 업계의 경우 할리스가 지난달 마스코트 ‘할리베어’를 공개했다. 진한 커피 향에 이끌려 숲속에서 내려왔다는 스토리로 설정된 할리베어는 커피콩 모양의 귀와 하트 머즐이 특징이다.

할리스는 ‘Bear Loves FALL’을 콘셉트로 한 시즌 메뉴 3종을 출시하고, 이

어 3D 피규어·카드지갑 등 MD 상품을 연이어 선보였다. 일부 제품은 출시 직후 품절 행진을 이어가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청마오를 수입·유통하는 비어케이이는 판다 캐릭터 ‘따오’를 활용해 주류 브랜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부산국제록 페스티벌에서 체험형 부스 ‘따오-락실’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했고, 카카오톡 한정판 이모티콘은 하루 만에 2만5000개가 완판됐다. SNS와 굿즈 마케팅을 통해 ‘유쾌한 맥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는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세대가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과 캐릭터에 ‘공감’을 소비한다”며 “캐릭터는 브랜드가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캐릭터는 제품의 부속물이 아닌 브랜드 정체성을 전달하는 핵심 자산(IP)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통업계의 캐릭터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K바사, 코로나 변이주 등 차기 팬데믹 대응

‘GBP511’ 글로벌 임상 추진
“사베코 바이러스 전반 예방 목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대응할 범용성을 지닌 ‘차세대 백신’의 임상에 돌입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과 같은 ‘사베코 바이러스’ 계열을 표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베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의 다양한 변이주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포함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계열 전체에 유효한 백신을 개발해 향후 관련 바이러스 및 변이주를 한 번에 예방하는 범용 백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국제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함께 GBP511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비임상, 임상 1/2상, 공정 및 분석법 개발 등 초기 연구개발비 6500만 달러(약 900억 원)를 지원받았다.

GBP511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2년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의 기반 기술이 활용됐다. 스카이코비원의 합성항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미국 워싱턴 대학 약학대 항원디자인연구소(IPD)의 ‘자체 결합 나노입자’ 디자인 기술이 적

용됐다.

글로벌에서도 다수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범용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이번 1/2상 신청은 빠른 행보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2025년 약 506억 달러(약 69조 원) 규모로 평가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해 2032년 약 834억 달러(약 1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사진)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현재도 관련 바이러스는 변이를 지속하며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며 “GBP511은 변이와 상관없이 바이러스 전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차기 팬데믹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스테키마’ 뉴질랜드 품목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보유한 전체 적응증 승인

셀트리온은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 기안전청(MEDSAFE)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허가 승인으로 스테키마는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뉴질랜드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한 승인을 확보했다. 허가 제형은 주사제(Vial), 프리필드시린지(PFS) 두 종류다.

특히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으며 ‘퍼스트무버(First Mover)’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던 램시마, 램시마SC, 유플라아마와 같은 기존 중앙괴사인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셀트리온

(TNF- α) 억제제 제품군에 이어 스텔라마가 속하는 인터루킨(IL) 억제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에 따라, 치료 대상 환자 범위를 넓히고 자가면역질환 시장 내 영향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스텔라마의 허가 오세아니아 주요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에서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해 출시 초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꾸준한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의 의약품 공급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2상 돌입

〈알레르기 신약〉

한국 포함 다국가 임상 추진

유한양행은 알레르기 신약 ‘레시게르셉트’의 임상2상 시험계획(INN)을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레시게르셉트는 항(anti) 면역글로불린 E(IgE) 계열의 Fc 융합단백질 신약이다. 혈중 유리 IgE 및 IgE 수용체 알파 단백질(Fc ϵ RI α) 자가항체에 결합하여 제거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통해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한다.

유한양행은 앞서 수행한 레시게르셉트 임상1상 시험 3건을 통해 안전성 및 예비적 개념 증명을 확인했다. 임상1상 시험 결과, 레시게르셉트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안전성과 대조약 대비 더 강력하면서 지속적인 혈중 유리 IgE 억제 활성을 보여주었고, 만성 두드러기 평가 지표인 UAS7(7일 동안의 두드러기 활성도 점수)을 이용한 평가에서 대조군 대비 더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임상2상 시험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

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레시게르셉트 및 위약을 12주간 투여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한국 포함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 사장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대상의 이번 임상2상 시험은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보다 많은 환자에서 레시게르셉트의 안전성, 유효성 및 임상적 특징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R&D 확대 전략의 성공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임팩타임 A+ 스틱젤리’ 출시

대웅제약은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한 ‘임팩타임 A+ 스틱젤리(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임팩타임 A+는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스티킹 젤리’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식물성 천연 카페인과 L-테아닌을 2:1 비율로 조합해, 카페인 섭취로 인한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몰입 유지를 돕는다. L-테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천연 아미노산으로, 카페인과 함께 섭취할 경우 인지 수행 과제에서의 정확도와 집중력



이 위약대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콜린과 이노시톨을 각각 200mg씩 배합했다. 콜린과 이노시톨의 원료적 특성으로 각각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타우린 1000mg, 비타민 B군 8종으로 활력을 더하고, 레몬농축액 3000mg으로 졸음을 깨우는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

/이세경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강연	14:50~15: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15:20~15:5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15:50~16:20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진식 증권련 회장 “조지아,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

15일 증권련에 따르면 최진식 한국증권기업연합회장(왼쪽)은 전날 서울 마포 협회 사무실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국가인 조지아는 유라시아 회랑의 물리적, 실질적 길목을 확보한 핵심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전했다.

/증권련

**롯데면세점·동반위, 협력사 ESG 경영역량 강화**

롯데면세점이 동반성장위원회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3년 연속으로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5000만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롯데면세점

**하림산업, 제조공장 견학 프로그램 리뉴얼**

종합식품기업 하림산업은 자사 대표 브랜드 ‘The미식(더미식)’과 ‘푸디버디’의 생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제조공장 ‘퍼스트키친(First Kitchen)’ 견학 프로그램을 리뉴얼하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림산업

**한국엔컴퍼니그룹, 소외계층에 차량 기증**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14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김준현 한국엔컴퍼니 경영총괄(가운데),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차량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엔컴퍼니그룹

**KB국민은행, 저소득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전달**

KB국민은행은 15일 저소득 출산 초기 가정을 위해 ‘우리아이 첫 선물’ 육아용품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된 임직원 걷기 캠페인 ‘건강한 일상, 행복한 희망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한주 KB국민은행장(가운데)과 KB국민은행 포용금융부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LG전자, 국립현대미술관서 대국민 참여 콘서트 열어

‘커넥티드: 기술, 예술로 잇다’

오는 29일 누구나 무료참석 가능
스탠바이미2 등 제품 전시 체험

LG전자가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한 대국민 참여 콘서트를 개최한다.

LG전자는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협력해 오는 29일 오후 6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야외 미술관마당에서 대국민 참여 콘서트 ‘커넥티드: 기술, 예술로 잇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사회,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잇는 혁신 기술과 현대미술의 접점을 조명하는 예술 축제로, 토크콘서트와 아티스트 공연, DJ 퍼포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오는 29일 오후 6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야외 미술관마당에서 대국민 참여 콘서트를 개최한다.

/LG전자

먼스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1부 토크콘서트는 ‘AI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된다. 융합예술·인공지능·패션·미술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은하수 별헤는밤’ APEC 만찬주 선정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
경주서 푸드트럭 시식행사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교촌에프앤비의 농협회사법인 발효공방1991이 외교부와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찬은 10월 10일 열린 MOU 체결을 통해 공식화됐다.

교촌에프앤비와 발효공방1991은 이번 협찬사로 참여함에 따라 세계 외교무대에 K치킨과 한국 전통주를 후원해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저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발효공방1991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막걸리 ‘은하수 별헤는밤(사진)’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공식 만찬주로 선정됐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 협의체로, 2025년에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다.

‘은하수 별헤는밤’은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주최 ‘2025년도 대한민



국 당발효 기술을 활용해 꿀처럼 달고 향기로운 풍미를 구현해, 외교무대 만찬에 어울리는 품질과 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경주시내 국제미디어센터 인근에 마련된 ‘K-Food Station’에서 교촌치킨 푸드트럭 시식 행사를 열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붓질로 맛을 내는 K치킨 교촌만의 제조 노하우와 맛을 동시에 전파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삼표그룹, 신규 입사자 온보딩 교육

새로운 직무·환경 적응 도와

삼표그룹이 최근 신규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온보딩 교육을 열고 그룹의 문화와 가치 이해, 소속감 제고 등을 도모했다.

15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본사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과 경주연수원에서 그룹 역사, 핵심 가치, 계열사 사업 이해, 전략적 협업 등 필수 기초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그룹의 핵심 가치를 영상으로 표현하고 디지털 톨 활용법을 배우는 ‘삼표프로덕션’은 신입사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핵심 가치를 직접 영상으로 제작해 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또한, 기획·실행·발표 과정에서 창

의력을 발휘하며 협업을 경험하는 ‘목표 달성 팀 액티비티’, 단체 미션과 계임을 결합한 ‘팀 빌딩 미니올림픽’, 경북궁 일대를 탐방하며 리더십 사례를 배우는 ‘경복궁 리더십 트립’도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화성 공장을 방문해 레미콘, 몰탈, 골재 등 건설 현장의 기초소재 생산 공정도 직접 확인했다. 원재료 입고부터 생산, 출하, 설비 관리까지 자동화된 공정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을 둘러보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온보딩 교육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직무와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참여하며, ▲이진준 카이스트 교수 ▲루시드폴 공학박사 겸 심어송라이터 ▲최효영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팀장 ▲한나신 패션 디자이너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참여한다. 좌석은 300석으로 한정돼 있으며, 참석 희망자는 LG전자 멤버십 앱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2부 라이브 콘서트는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전방위 아티스트 수민(SUMIN), 전자음악가 키라라(KIRARA), 인디밴드 글렌체크(Glen Check) 등이 출연하며, 야외 스탠딩 공연으로 별도 예약 없이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콘서트가 열리는 29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현장에는 ▲스탠바이미2 ▲에어로퍼니처 ▲그림 프로 ▲티운 등 LG전자 주요 제품도 전시돼 관람객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정수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모두를 위한 예술 축제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아트포유(Art for You)’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예술적 영감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내년도 ‘한화 점자달력’ 신청접수 시작

한화그룹, 내달 15일까지 진행

한화그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2026년 한화 점자 달력’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로 배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화 점자달력은 지난 2000년 김승연 회장의 뜻에 따라 처음 제작됐다. 당시 한 시각장애인이 달력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을 전하자 김 회장은 시각장애인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점자달력 제작을 추진했다.

이후 올해로 26년째를 맞은 한화 점자달력은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첫째 5천 부로 시작한 배포 수량은 매년 확대돼 올해는 4만 부를 배포하며, 누적 제작 부수 100만 부를 넘어선다.

달력에는 일반 달력에 점자가 함께



2026년 한화 점자달력.

/한화

표기돼 있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누적 100만부 제작은 시각장애인 지원에 있어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한화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시각장애자 가전매뉴얼 공개

스타트업 ‘투아트’와 협업

삼성전자는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흰지팡이의 날은 지난 1980년 세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이 기존 매뉴얼을 통해 가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초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

된 시각보조앱 개발 스타트업 투아트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사용법’ 매뉴얼을 개발했다.

새로운 매뉴얼은 삼성닷컴과 AI 기반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은 화면 읽기 기능을 제공하며, 하단에 위치한 재생버튼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매뉴얼은 제품 외관과 조작부 위치 등에 대해 눈앞에 그리듯 상세하게 설명하고 음성 제어나 접근성 기능 사용 방법도 자세히 전달한다. 또 촉각 스티커 부착 위치도 안내해 접근성을 높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진주지청장 정해영
◆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현

부음

▲문기심(향년 93세)씨 별세, 방제용·방은자·방제경·방은숙·방은애·방제훈씨 모친상, 방태식(일사이트 기자)씨 조모상 = 15일 오전 1시5분, 인천 강화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장지 인천가죽공원, 032-933-1024.

유네스코 문화유산 24절기의 변화



전형일의

세상이야기

24절기(節氣)가 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력(陽曆)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기존 ‘율리우스력’을 보완해 만든 ‘그레고리력’이다.

또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된 것은 프랑스 샤를 9세가 1564년에 선포한 이후이다. 만우절 탄생 배경처럼 이는 비과학적이고 자연 현상과도 무관하며 극적인 사연도 없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달(月)을 중심으로 한 역법(曆法)인 음력(陰曆)을 사용했다. 그래서 달력이다. 음력은 달의 모양만 보고도 날씨를 대략 알 수 있어 역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유용했다. 변화하는 달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생체 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들의 생리 현상인 월경(月經)도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적 현상’에서 유래했다.

특히 달은 지구에 가까워, 그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조수간만이 생긴다. 따라서 달의 주기에 따른 ‘물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어

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계절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운 채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구에서 볼 때 1년에 걸쳐서 태양이 하늘을 이동하는 경로를 황도(黃道)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서 관찰한 태양의 연간 이동 경로를 15도마다 구분을 했다. 즉 360도를 15도마다 나눈 것이 24절기다. 천문학 기준점은 춘분(春分)이다.

입춘(立春), 동지(冬至) 등은 매년 2월 4일과 12월 22일로 윤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정해져 있다. 이는 24절기가 철저히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음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이 완성됐다. 바람, 비, 눈, 더위, 추위 같은 짧은 시간의 상태를 날씨라고 한다면, 수십 년 이상의 긴 주기를 두고 변화한 것을 기후라고 한다.

절기는 계절 변화의 규칙을 반영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지 일기예보는 아니다. 음력과 절기가 합해진 태음태양력은 천문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자연 흐름에 가장 적합한 역법이다. 이 때문에 24절기는 2016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

다. 24절기는 고대 중국 진한(秦漢) 시기에 이미 실용화됐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발상지가 화북 지방이라 우리나라 기후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농기구 점검, 발농사 준비, 작물 모종 키우기 등 체감 날씨나 농사에는 역시 24절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익숙한 24절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상승했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처서(處暑)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원 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날씨는 인류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다. 기후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서뿐 아니라 농업,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이상 날씨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인류가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덧붙여 사주(四柱)는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정해지는 등 24절기에 따라 팔자(八字)가 정해진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 그 특성이 달라져 난감해진다.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정치에 휘둘린 방사청, 표류하는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지수첩

이승용
(산업부)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해군력의 핵심 프로젝트가 행정 혼선과 정치 개입 속에 방향을 잃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사업의 총괄 기관이지만 이제는 조정자도, 결단자도 아닌 이해관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관료 집단으로 전락했다. 국방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는 사이, 수년간 준비된 미래 전력 사업이 멈춰 섰다.

논란의 중심은 방사청의 ‘보안감점 연장’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발점 만료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로 돌연 연장했다. 스스로 유지해온 ‘최

초형 확정일로부터 3년 적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법리적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보안감점 연장’ 과정이다. 발표 직전 여당과 국방부 방사청이 비공개로 협의했고, 여당 의원에게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검토보고’가 제출됐다. 이후 방사청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공식화했다.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전형적 사례로 국방 행정의 독립성과 신뢰가 정치의 흐름에 따라 흔들린 셈이다.

KDDX는 단순한 조선사업이 아니다. 함정 설계, 전투체계, 레이더, 추진체계 등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 해군의 자주전력 상징이자 방산 수출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방사청은 조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며 사업 일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의계약이나, 경

쟁입찰이나’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군의 전력 공백은 커지고, 산업의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립은 결국 국방방사청의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다. 주무기관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개입하고 여론이 흔들리며 사업의 주도권이 사라졌다. 행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차세대 구축함 개발은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와 멀어질 뿐이다.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과 절차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국방 행정이다. 방사청이 원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KDDX는 ‘국산 구축함’이 아니라 ‘국방 신뢰의 침몰선’으로 남을 것이다. /lsy266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6일 (음 8월 25일) <http://www.saju4000.com>



취



소



호랑이



토끼



양



용



뱀



말



양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토끼



양



용



뱀



말



양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토끼



양



용



뱀



말



양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김상회의四季

고사를 왜 지내야 하나



한국의 전통 사회에는 고사라는 의례가 있다. 고사는 액운을 없애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神에게 비는 풍습이다. 단순히 제사 의례를 넘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앙적 풍습이었다. 고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큰 사건을 앞에 두었을 때, 신에게 알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고사는 집을 지을 때나 농사를 시작할 때 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행해졌다. 현대 사회에서도 개업식이나 영화 촬영 현장 건축 현장 등에서 여전히 고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고사를 지내는 큰 이유는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니.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운명을 초월적 존재와 연결해 이해하려 했다. 따라서 고사를 통해 하늘이나 신령,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복이 온다고 믿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풍년을 어촌에서는 풍어를 가정에서는 무사태평을 바라는 마음이 고사 속에 담겨있다. 또한 고사는 액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앙이 따르기 마련인데 고사를 지내면 이러한 불운이 사라지고 길운으로 바뀐다. 집을 새로 지을 때 고사를 지내는 이유도 결국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족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함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도 예상치 못한 실패와 손해를 막고 순조로운 성장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회사 개업식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 역시 직원과 손님 모두에게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는 의례다. 과학과 합리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고사의 전통이 살아 있는 것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은 아니다. 복을 바라고 액운을 피하고 문화적 장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라기보다 인간다운 소망의 표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양동 일대 49층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재개발사업 신통기획 확정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통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곳은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통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통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곳이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수도시설 설치 지자체 부과권 인정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과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부과 권한이 명확히 인정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에서 법원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인천시가 패소했다. 이에 인천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 전체의 분담금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설치행위는 도시정비법상 고유의 의무이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숭실대-美 애리조나주립대, 연구협력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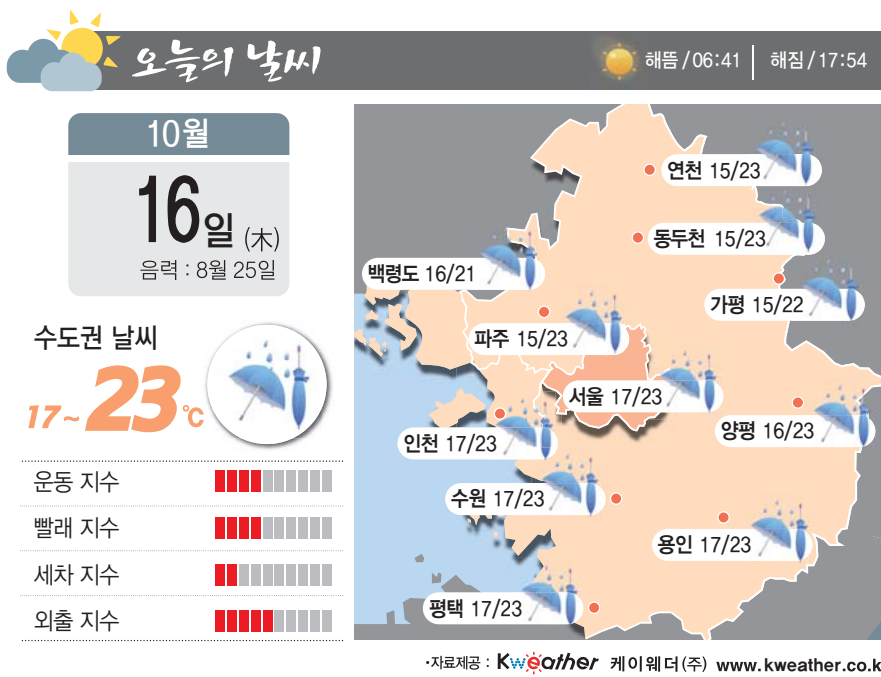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4일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와 교육·연구·산학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원·학생 교류 ▲공동 심포지엄·워크숍 개최 ▲공동 교육과정·콘텐츠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개별 사업은 별도로 세

부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숭실대는 모든 학문에 AI를 접목하는 'AI+X, X+AI' 전략으로 교육·연구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최초 'AI대학'을 신설해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의 무상 접근권을 제공해 학습·연구 환경을 고도화했다.

/이현진 기자



학생·청년위한 진로캠퍼스 열고 AI 코치로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

서울런 3.0 업그레이드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취업 지원까지 확대된 '서울런 3.0'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시는 14일 '서울런 3.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AI 시스템 전면 도입,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1년 출범한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제공해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누적 이용자가 3만6000명에 달한다.

◆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도 지원

서울시는 기존 입시 중심 지원을 넘어 진로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초·중·고·대학생부터 청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진로캠퍼스'를 운영한다.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항공 등 실제 직업과 유망산업이 연계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립대·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청소년특화시설(미래진로센터·미디어센터 등),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과정은 초·중·고·대학생·청년(로봇·드론 등), 중·고·대학생·청년(코딩·AI·음악콘텐츠 등), 고·대·대학생·청년(뷰티·미디어 등), 고·대·대학생·청년(항공·우주·해양 등)을 포함 총 4개 단계로 이뤄진다.

서울 소재 대학(국민대)과 협력해 음악·미술·무용 등 예체능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체능 클래스'도 운영된다.

◆ 생성형AI 플랫폼 서비스 시행

2026학년도부터는 'AI 진로·진학 코치'를 통해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학생부 평가 가이드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15일 오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로·취업 콘텐츠 확장, 인공지능(AI) 도입, 학습 기반 강화,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서울런 3.0 추진계획 발표
로봇엔지니어·바이오·뷰티 등 15개 기관서 '진로캠퍼스' 운영

'서울형 영어학습모델' 개발로
초·중·고·대학생·청년 500명 대상

이와 함께 서울런 학습시 영어 단어장·유사 시험문제 제작, AI 질의·응답, 이미지·영상 생성 등 자동화된 학습 보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제미니(Gemini)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클래스101 등과 협력해 초·중·고·대학생·청년대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실습을 돕는 'AI 리터러시 전문강좌' 6000여 개 등 AI 스킬 업을 위한 학습콘텐츠도 제공한다.

중·고·고교생 서울런 회원 60명을 선발해 과학·AI 분야 심화 교육과 진로·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단' 운영에도 들어간다. 한양대 등 대학·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한 실습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첨단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

◆ 지원 대상 12만→17만 명 확대

서울시는 초·중·고·대학생·청년 500명 대상 '서울형 영어학습모델'을 개발해 공교육 영어 공백을 메운다.

우선 공교육 영어 학습 공백이 있는 초·중·고·대학생·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코칭을 병행, 학습 전·후 학습효과와 평가를 통해 연령 및 수준별 영어 학습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달부터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들어간다.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중·고·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코칭을 병행, 학습 전·후 학습효과와 평가를 통해 연령 및 수준별 영어 학습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울런 학습 공간은 오프라인으로 확장된다. 서울시립대·50플러스캠퍼스·사이버대학 등 서울 시내 30여 곳을 활용해 대규모 특강, 진로교육, 소모임 등 프로그램을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권 대학 지원율 18.8% '5년래 최저'

수도권 학생, 충청·강원권 비율 ↑
제주 제외 비수도권 지원율 상승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5.0%p 줄어든 18.8%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대학 현황(총 26만8821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2학년

도 22.2%,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8.8%로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 수험생들조차 서울권 대학 지원을 줄이면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신 충청·강원권 대학을 택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방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

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 합격 안정성,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수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중국, EU와도 대립... "히토류·기술이전 관련 무역분쟁 조짐"
▲ 트럼프 "中, 의도적으로 美 대두 안 사... 식용유 등 교역 단절 검토"

/사진 뉴시스

▲ 마다가스카르 Z세대, 대통령 축출... 인니, 동티모르, 필리핀, 케냐도 들쭉
▲ 캄보디아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 지난 14일 국적기 통해 돌아왔다

▲ 일본 언론 "中, 김정은 9월 방중 때 한국에 사전 통지 배려"
▲ 캄보디아 구금 피해자, "전기 충격기로 괴롭히고 쇠 파이프로 때렸다"



SSG닷컴 '美지엄'
맛집메뉴 즐기고
명품 뷰티 체험
L1



Life

유통업계
자체캐릭터 강화
팬덤형 소비 공략
L2



좋은 땅이 빛은 오가닉 와인 자연의 진정성 한 병에 담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본테라 '유기농 와인'

미국 넘버원(No.1) 유기농 와인 브랜드 본테라(Bonterra)가 국내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품질을 입증했다. 여기에 MZ세대를 겨냥한 스타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200% 이상 신장하는 성과를 거두며 유기농 와인 트렌드가 시장에서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본테라는 1987년 캘리포니아 멘도치노(Mendocino)에서 설립된 유기농 와인 브랜드로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좋은 땅(Good + Earth)'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브랜드다. 유기농법과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을 활용해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와인 생산을 실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물 사용량 절감, 포도 껍질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인 와인 '엔수지 애스트(Wine Enthusiast)'로부터 '2016년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테라는 '페루아의 정직한 표현'을 브랜드 철학의 핵심으로 삼으며 미국 유기농 와인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1위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와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더 블라인드(THE V:LIN D)' 레드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최고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다.

잇따른 수상은 본테라가 단순히 유기농 와인의 대명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시음에서도 전문가와 소비자

미국 독보적 1위 유기농 와인 브랜드 유기농법 활용, 자연과의 조화 강조 화학물질 배제 등 친환경 기술 도입

국내 블라인드 품평회서 정상 올라 젊은 세대와 공감대 확장 마케팅도 '가치소비' 흐름 속 지속적인 성장세

모두에게 객관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테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와인 수입사 아영FBC는 지난해 밴드 데이식스(DAY6)의 영케이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Born to be True'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는 "자연 그대로, 본질에 충실하다"는 본테라의 철학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캠페인으로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시음 행사까지 다양한 접점을 통해 전개했다.

팬덤과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본테라는 와인을 처음 접하는 MZ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다. 영케이 포토카드와 넥타이 증정 이벤트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며 와인 마케팅에서 이례적으로 팬덤 문화를 활용한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성과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났다. 블라인드 시음회 수상으로 얻은 객관적 신뢰와 MZ세대를 겨냥한 공감형 캠페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무려 200% 이상 신장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업인 '에스테이트 컬렉션'은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이 1만 병에 육박하며 고급 유기농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테라의 성장세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오가닉' 키워드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친환경·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본테라는 이러한 흐름에 정확히 부합한다.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로제 등 가볍고 산뜻한 와인은 데일리 소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프리미엄 와인은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특히 소비뇽 블랑은 본테라가 지향하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 상품이다. 캘리포니아 레이크 카운티에서 재배한 포도를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숙성

해 신선한 과일향과 청량한 산미를 구현했다. 자몽과 열대과일 향, 라임 제스트의 힌트가 조화를 이루며, 해산물과 샐러드, 가벼운 요리와 궁합이 뛰어나다.

반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깊고 풍부한 다크 가넷 컬러를 띠며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스파이스 등의 레이어드된 향과 함께 다크 과일, 가죽, 담배, 연필 깎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후 14~18개월 동안 프랑스 및 미국산 오크 배럴에서 숙성되어 바닐라와 토스트 향을 더해준다.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은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 레드 와인 부문(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대상 중의 대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체인 와인 엔수지 애스트에서(Wine Enthusiast) 92점을 획득했다.

본테라의 사례는 단순히 와인 한 병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가치 소비' 시대의 브랜드 생존법'을 보여준다.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 진정성 있는 생산 방식, 그리고 투명한 브랜드 스토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메가히트'가 만들어진다.



본테라 와인 시리즈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
▼소비뇽 블랑



본테라 와인하우스와 포도밭.



/아영FBC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고개 숙인 MBC, 故오요안나 유족에 사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약속 /사진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올 12월14일까지 '나의 꿈, 우리의 기록, 한국인의 책장' 전시

▲노원구, 당현천 바닥분수 광장 일대 수변 활력 거점 '당현마루' 조성
▲국기원, 국내 장애인태권도심사 첫 시행...이달 16~19일 비대면 심사

▲카타르·사우디, 아시아 4차 예선서 각 조 1위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국립현대무용단, 내달 21~23일 예술의전당서 '코레오 커넥션: 서울' 공연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민 모두의
 꿈을 키우는 **은행**

• KB국민은행의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솔루션 •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KB의 AI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

 **케이봇샘**

일도 자산도 중요한 당신을 위한
 투자전략, 세무, 부동산, 법률 1:1 종합자산관리

KB GOLD & WISE

황금빛 인생을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연금관리부터 증여, 건강관리까지 은퇴 종합 관리 솔루션

KB 골든라이프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계약 필독 -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 투자성향분석 결과 부적합시 가입 불가 -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 비보장 - 로보샘(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테스트베드 통과가 수익 달성 비보장 - AI 포트폴리오(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음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97-6호(2025.07.08.), 유효기간 2025.07.08.~2026.06.30.까지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2901호 (2025.7.11.~2026.7.10.)

 **KB 국민은행**